

聖句

보라 그의 마음은
표만하여 그의 손은
정직하지 못하나 의
인은 그 믿음으로
팔미이마 살리라.
(히브리국 2장 4절)

發 行 所
基督新報社
東京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神田(25)2623番
編輯人 吳 允 台
發行 吳 允 台
主 吳 允 台
印刷 吳 允 台

基督新報

KOREAN CHRISTIAN NEWS

社說

文書運動과
本報의使命

(人類)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 놀라운 섭리와 도리가 문자
로 기록된 것이 곧 성경이요
복음이니 이러한 하나님의 복
된 소식을 우리가 천히 천히
되여가는 것은 진실로 사람에게
있어서 무한한 행복이요 감사
한 일이다. 더욱이 그 복음이
각국방언으로 번역되고 인쇄되
게를 이용하여 모든 대중이
읽을 수 있게 되고 읽어서 구원
받고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인
간에 대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리고 문자가 발달한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신문 잡지 등
보도(報導)와 언론기관은 나

날이 발전하는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니 한
끼의 식사를 할지언정 신문을
읽지 못하고는 살지 못하게
되였으며 이런 것이 또한 하
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요
길이 되는 것은 다시 말할 것이
없다.

2 이제 한겨울 더 나아가서
백작할 것은 현재 극렬하게 버
러지고 있는 사상의 파동이다
이 사상전(思想戰)에 있어서
누가 지느냐 이기느냐 하는 것
은 진실로 우리가 살고 죽는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요 우리의
대적은 아직 어리고 이러한

민중을 감언이설(甘言利說)로
미혹하여 다시 회복하기 어려
운 무서운 형상에 빠지게 하고
한번 그 형상에 빠지면 자기
만 미혹하고 망할 뿐 아니라
다시 다른 사람을 또 미혹
하는다. 이러한 전술에 저들이
가장 유력한 무기로 문자를
이용하거나 우리도 이에 대
항하여 싸우는 데 이 놀라운
무기를 쓰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적색 도당보다도 못지않
게 우리 민족 우리 동포를
해하고 색이 는 것은 퇴색한
콜로 문명의 여독으로 오는
질주의와 세속주의나 곧 돈과
형식의 악마이다. 이런 악마에
게 우리 동포는 날마다 사로
잡히고 종이 되어 망쳐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마음을 대적하며 자신을 보

3 감탄에서 교인만을 상대로
설교만 하고 있는 저래의 방
법만으로는 나날이 격렬해가는
사상의 싸움과 복음의 전선에
서 승리를 바라기는 어렵다.
우리는 문화인의 양식이요
찾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자와
판도를 통하여 인류의 적이요
그리스도의 적인 사상과 제
를 깨트리는 동시에 우리의
목숨을 전하는 것이 가장 지
중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한 문자와 신문은 마치
어떤 비행기나 배라 부대
가 아무때나 어떤 모퉁이에

한 집안적 처사를 취하는 것이
국권의 세력의 일부는 침략
과 평화의 파괴에 대하여 유
심단적 처사를 취하는 것이
韓國問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다시 다른 사람을 또 미혹
하는다. 이러한 전술에 저들이
가장 유력한 무기로 문자를
이용하거나 우리도 이에 대
항하여 싸우는 데 이 놀라운
무기를 쓰지 아니할 수 없다.

미국은 六割이
미국시민은 一億五千万이리
고 차는 데 최근의 통계라고 하
며 인포에-송-서-비스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그 五十八

十月二十四日(11.8) 國連日
野圖書館



國連日에 리-氏言明

世界繁榮에貢獻
미국은 세계에 출현하여 고
난과 회생의 방파가 되었다.
이에 따라 二十二개국에서 자
전에 참가하였고 四十개국이
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다. 국
총회는 국권의 유일의 목적
집약할 적외하고 평화적 수단
로 통일된 독립 민주국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것을 반복하여
성명하여 왔다. 그 실천은 이
미 한국경제부흥기관이 조직되
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다. 리-氏는 그 외에 국권이
삼립된 이래 조선과 이란문제
리아와 데마논 문제, 베루린 문제
팔레스타인 문제, 가시밀 문제, 국
련의 조정으로 해결된 것과 인
도네시아 리비아 소말랜드 등이

새로 독립국이 역시 국련의
조정역할에서 성공된 실지
로 첨부 하였다.

國連은 빈부국의 차별없이
각국의 제의를 질서있게 공동
한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고 후
진국 국민의 민생을 도모하
고 과학 지식의 향상을 도모하
고 연구 조성과 장학금은 二千
만을 처리하였다. 一九四四年에는
世界人權宣言을 채택하여
인간의 위엄과 자존권에
환기시키고 소수 민족 보호에
활동하고 있다. 그 실례문제로
있어서는 제2차대전 후 피란민
과 포로 백여만 명을 구출 혹은
정주 시켰고 국제 아동 기금

恒久的平和實現에曙光
韓國統一獨立에努力은不變
國連日에 리-氏言明

七年丙子 제二차 세역대 전
이 신자력이라는 무서운 병기
를 보고 통발될때 이제 다시
는 단쟁이 없은 세계에서 인
류가 좌평스롭고 행복되어 살

도록 할 것이요 그 법칙은
 법률의 논자는 대서 국제연
 합이라는 것이 생기었다.
 전자는 六十國綱이 가입되어
 오늘날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六十國綱 전부가 국제연합
 의 지향하는 방향으로 행하는

國連紀念日에

것이 아니라 도로히 이 이상
 세계의 실현을 위해서하고 그
 실현에 장애를 끼치는 나라도
 있다. 가장 아슬아슬으로 우리
 그 이상세계의 실현을 속하하
 는 나라들은 평화와 자유를
 사당하는 나라와 민족들이다.
 최근 뉴유에 완성되었고

근대인물이라는 데 각국에서
 선하여 그 건축에 귀한 자재
 설비품을 기증하였다 한다. 그러
 나 국제연합의 이상은 그 건
 물을 세우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한국전쟁에 四十二개국의
 적적 원도를 일으키는 것도 아
 니고 한국전쟁에 二十二개 국
 도 파괴를 청하려한 것도 아니
 한국전쟁을 정지시키려는데 十
 六個月씩이나 허비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오직 지구상의 모든인종이

응 평화속에 줄길 수 있는 행복을
구리고 살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런 이상세계 실현
은저녁 세계는 오히려 역경에
처하여 모든 인종이 모든 민
족이 도란속에서 신음하며 공
포에서 떼어코만 있는 것이 현
상이다. 우리 민족은 세계평화
의 실현에서 참으로 그 세
계의 실현을 의한다. 그것이
우리의 근원대를 앞세운 시가
평화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한 불의도 평화가 대답
하지 않으면 한민족은 하나님을
부를 것이요 뿐만 아니라 세계
를 하나님을 통하여 살 것이다

人 事

○아전엘라博士夫人。○을마노武藏
藩夫人。미스메비。○을마노十月
二十三日에 OAT로 ○을마노
○鄭黨長老(眞生寺僧正) 지단
十月二十五日 空路東京着
○金良善牧師(基督敎傳道館長)
二十一日 訪日

요새에 한
가지 유쾌한
일은 동경에
있는 우리한
업과 유쾌한
기관이 오
은 이들의
모금대의인

을 세우고 六千萬이상의 아동을
예배 양식과 의복을 주는데
근박한 오늘날의 정세라고 하면
서도 국력은 유사이래의 전무
한 원도적사업을 행하여왔다고
하며 국제연합의 임무와 사명
을 세계二十三億인민에게 호소
하였다.

미국 총독단에게 가입한 수에의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것으로 본다.

미국 총독단에게 응대에 의하면
작년도 현재로 단세 수는二百
五十二이었고 신도 총수는八
千八百七十七萬三千五名인데
전년도에 비하면 약二百萬의
신도가 증가되었다.

六大宗教信徒現在數

이 숫자에 대하여 미국 NCC
는 지난九月에 발행한 교회연
람에 전년보다 전체적으로二
千一센트가 증가 되었다고 하며
전 인구의 五十八퍼센트에달
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다시
신구교로 구분하여보면, 삼은비
율로 증가되었다는데 각종파별

로 보면 루터교는三十二名을
二百六十六萬二千四百三十二名을
최고로 로마 개톨릭은 二千九
百二十四萬一千五十八名 유대교
五九萬 동방정교회 百八十五
萬八千五百八十五名 울－드－
레트－(Unites) 개톨릭교도三十三萬七千
四〇八명 불교(佛敎)七萬三千
名이다. 이것이 소위 미국의
六六종파의 현상인데 과거 약
五十年간에는 같은 비율로 발전
증세를 보이고 있다한다.

그런데 이 숫자내용에 있어
서는 약간 설명을 요하는바가
있다. 개톨릭은 유아세례를 받
은자를 일반신도수에 넣고 유
대교일은 집회있는 단세단위로
유교인을 제외하고 그 참가자 전체
를 유대교신도로 합산하였고

동방정교(東方正敎)는 같은 방

二七五萬八百七十七個 소에
十八萬五千一百四十九個 이
다. 이에 대하여 NCCO 조차
부 레겐 하스 팔딩氏는 『주
일학교생도가 진전한 숫자로
가 되는 것은 최근 수년간의
가운현상』이라 하였다.

獨逸最古의聖經

신시나리에서 NCCO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미쿠크출력성경주
간에 성모 마리아山 신학도서
판에 보관되었던 진기한 성서
가 전사되었이라 한다.

그중에는 구텐베르크에서 인쇄한
성경원본에서 十十年의 세월을
두고 독일어(獨逸語)로 번역

고 깨끗해졌었다. 외국 사
람 보기에 부끄럽고 산교사
를까지 걱정하는 것은 회관
을 수리하지 못하여 더럽다
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은 회관 내부나 뒷뜰까지
깨끗해지고 특히 담당은 아
름답게 단장을 해서 누가 와
보든지 우열하던지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되었다.

▽한 여자가 몸을 깨끗하게
감우지 못하고 단장을 아니
한다면 그는 그만쯤 배으르
고 제수신을 못하고 저할
일을 못하는 여자라는 것을
들어내는 것이 오늘날의
덕질을 받게 된 것이다. 우
리의 Y M U A도 이러한 유감

히 틀어 가서 그 전부의 목적
 을 달할 수 있는 것처럼 문서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
 리 침입하여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다.

4

대세 우리네 우익측과 교회
 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조직과
 단결력이므로 서로 민속하고 긴
 밀한 연락을 하는 힘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로 이제 우리에
 게 긴급한 것은 본저 통일단결
 을 남조하며 아울러 서로서로
 연락하며 통신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
 보는 제일 한일교회와 일반
 동포의 사상적으로 수호하고
 싸우는 우익인 동시에 우리교
 회와 총회의 중심 기관이다.

오윤복우익의 노열과 외국친구

의 적극적 협조로 본보가 창
 설 되었는데 이렇게 귀중한
 기관인 본보가 앞으로 유지난
 데 당쳐있고 현재의 경영난에
 처해 있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큰 근심거리요 우리의 두어배
 에 지워진 중대한 책임 문제
 라고 할수있다.
 지금까지는 순전히 외국천구
 의 보조를 의존하여 유지해
 왔으나 우리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겠다는 독립적 정신
 으로 마땅히 본보를 도야할
 것이 아닐 더욱 내일을 내가
 힘쓰지 아니하면 누가 책임 지
 라 내지는 언제든지 내가 저
 야할 각오를 요배하여 최선에
 협력과 노력을 다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

★

업으로 미수를 하는데 푸르려
 스칸드는 교회에서 회선의 책
 임을 수행하는 자(대략十三세이
 상)만을 이 동계수자에 넣은
 것을 아려두어야 한다. 그외에
 크리스찬 사이엔세스트 같은데
 서는 신도수를 공표하지 아니
 하비된 것도 있고 이외에도 다
 수한 대소교파가 있으나 동계
 수에 들지 아니한 것도 있다.

牧師의數는十八萬名

一九四〇년도 조사에 의하면
 목사의 총수는 一四萬七十七名
 이었으나 一九五一年도 추산에
 의하면 현직목사한十八萬一千一
 百二十三名이라고 본다. 한편 N
 C C 발표에 의하면 성직자전
 체수는 二十八萬九千十四명이라
 는데 그속에는 현직자와 은퇴
 자의 수가 섞여있다.

이 말하였다.

『이 두권의 성경은 많은 사람이
의 흥미를 끌을 줄이다. 왜
냐하면 세간에서는 독일어 성
경의 첫 번역자는 말한 루
터라고 주장되고 그 당시
캐톨릭교회는 성경번역을 한
대하였다고 비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성경이 그런 말
들을 한중하였기 때문이다.
그 두책중 한권은 세론에서
하인리히 쾰텔이 동독독일이
로 인쇄한 것이니 一四七八年
일부인(日附印)이 있고 또
한권은 루터가 인쇄한 一四
八三年에 고금독일어로 뉴-
룬라에서 안손 고쾰텔이 발
행한 것이다.』

면목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
고 출세하게 되었으니 고마
운 일이다.

▽ 거기에는 이정열, 박영삼,
두 분 총무와 이사장 이대위
씨의 이사제씨와 특히 이번
씨로 이사되신 모씨의 성의
와 활동이 많은 것을 알고 감
사한다. 우리 동영호 B.O.B는
이장에서 우리 기독교와 민
족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는
것과 과거에 김정식 백남운
최승만, 같은 훌륭한 인물을
의 공적의 열정이요 역사적
의 기관이라는 것을 명심해도
일찌 잘해 가야겠다. 그리고
이 회관에서 살고 출입하는
청년들중에 깨끗한 열적자로
천국과 조국에 이바지하는 이
가 많도록 노력하기를 바란다



本社主筆을 중심으로 한 우리海軍의靈的指揮官 海軍軍牧座談會

時處所 半山海軍本部將校士각부
日時 廿年十月十一日午後一時
參席한이

海軍本部軍牧室長 鄭連斌
總務課長 李恒東
軍牧課長 李恒東
海軍司令部軍牧室長 朴昌潘
海軍病院軍牧室長

海軍上官學校軍牧室長 曹秉燮
西海島軍牧室長 全德成
東海島軍牧室長 (一處島) 韓基源
新海軍病院軍牧室長 印光福
軍牧室長 宋昌成
未參者 六三 甲成國
六五 宋昌成

우리 해군에서 오래전부터 군목(軍牧)은 군인으로서 완전한 자격있는 군인으로써 복음전도와 사기진작(士氣振作)에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여 왔고, 또한 아지 본부에 독립된 부서가 없이 인사국에 소속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본부에 군목실(軍牧室)이 신설되고 그 책임자로서 정찰원목사(正察院牧師)가 임명되어 전 해군의 군목사업을 총괄하게 되었고 그 동안에는 해군과 해군과는 조식이 따로 되어 군목도 직접 관제가 없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해군대 군목도 본부 군목실에 속속되게 되어 우리 해군군목사업을 이제 통일과 발전을 하게 되고 새로 활기를 띠게 되었다. 마침 일선과 후방 각부에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활약하는 군목들의 대부분이 본부에 있는 일선에 자리매 오이게 되고 또 마침 일본 동명에서 문서전도의 중대사명을 띠고 수고하시는 기독교신부 주필 전영택(田榮澤) 목사가 귀국하였다가 본부를 방문한 기회에 그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서 화합회를 열게 되었다.

李恒東 정찰원목사(소명) 한 일입니다. 둘러 가면서 말은 피치못할 사정으로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마침 전 목사님이 집에서 오셨고 각지 일선에 있는 군목들이 한자리 모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에 게 오이게 된 것은 매우 다행

宗教改革紀念日에 — 現代的意義追求 —

羅曾男

종교개혁 기념일을 당하여 우리는 四百餘年전에 루터가 개종(改宗)에 개혁신언을 공개한 날이라는 정도의 인식으로서 이날을 보내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

基督교회가 그 이상의 생각이 일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현대적 사명을 잊어버린 것이 사실이니 우리의 자질이 개혁(改革)을 받아야 할 존재(存在)의 인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四百餘年前 독일 나라 쾰른의 城門 앞에 서부 첫날 九十五개조의 항의문을 열심으로 읽자는 것이 아니라

소위 『부패하였다』는 당시 종교 개혁에 九十五개조문을 써 부처 기까지의 루터에게서 배울것을 배우고 현대에 처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임무 사명에 올바른 길을 밟아가도록 하는 반성론의 기회로 삼자는 것이다.

나 후된 民族國에 태어난 우리는 科學的인 現代人이라고 하면서도 모든 것이 아직 더 발전된 과학적이 아닌 것이 많다. 종교 개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는 개혁이란 文字가 革命으로 이어질 뿐이고 政治的인 압력의 영향으로 感情이 앞서면서 도저히 자리가 잡히지 아니한

다. 다시 말하면 루터가 개혁의 腐敗하고 타락한 사실을 공격하는 항의문을 하였다는 정도에서 더 깊은 지식은 거의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같은 말은 우리 나라 기독교 문필가 몇 분과 이야기하는 데서 받은 인상에서 내리운 결론이다. 필자 역시 무식한 자 중의 한 사람이니 다만 종교개혁의 한말에 의하면 『루터는 성경을 애독함으로써 이 크다란 문제를 제시(提示)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성경을 읽어야만 구한 루터에게서 당연한 나 타날 일인 줄 알지만 이 근근 문제를 모르는 형제에게 이 기회에 소개하려 한다.

우리 장 동생은 매우 있는 조목사로서 먼저 말씀해 주시길요. 머리가 빠지고 서양 사람같이 작게만 양한이 먼저 말씀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일동 웃음) 바라는 이야기 하시지요

曹秉燮 처음에는 바라는 것이 좀 고맙습니다. 자하 익숙해 지니와 편지갈루고 배를 타고 나가 수영을 하 참 천해지니다 배를 타면 사실 이 군과 천해 기회가 생깁니다. 이국 함정에서 나를 정해서 배를 보면 서 세계를 배운다 말하고 해 서 몇갈 배를 순 일도 있었지요 이런 아마 역사에 있는 일 일일이요

韓基源 세가 있는 배는 저 삼팔선 정전(淸津)과 바다에 여도라는 섬인데 바로 천해 우리 해군이 공산군을 일대 천해 한 곳입니다. 지금도 가호 적단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일제히 배를 보고 용감스러 운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다 하 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주축 들어갑니다.

潘秉燮 한목사는 우리 중에 제일 젊은 군목인데 그런 위 경지대에서 잘 해가신 답니다 이번에는 상이 군인 교도 사업에 대하여 박목사께서 말씀해 주시길요 **朴昌潘** 저는 진해에서 송정설 목사 뒤로 병원에

대한 책임을 맡고 이번에 상이 군인을 지도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목사에게 적당한 일인 줄 압니다. 육군에서는 아직 손쓸 수 없는 직업에도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벌써 졸업장을 한 배 명 내 놓습니다. 참 재미 있습니다. 직업은 대개 시계수선 사 진 후인생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점점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 배를 지도하면서 전도 하는 배를 지도합니다. 군목으로서 지내보았을 나라는 군목으로서 애로도 많지는 참 재미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목은 일선이라도 교회선(交火線)에 안나가고 수방일선에 있지

오래전제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잡아먹는 아주 무서운 짐승같은 토인들이었다. 이 사람들에게도 리빙스톤 같은 전도인이 가서 전도를 하니 나중에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었다. 학교도 병기고 예배당도 생기고 성경책도 읽게 되었다.

하루는 토인들의 추장이 야자나무 아래서 성경을 읽



성

兒童劇
크리스마스
(2)

하기 때문에 군인 상관이 나
현령으로서는 문제가 되고 처
할 할 것이라도 무사한데 한
서는 매달이 되고 말지요
(계속)

新刊紹介

著者 金正茂 夜師
金正茂 五千圓

예수傳 六十年의 역사를 가진 수전은 이것이 처음이다. 저자 김복사는 청상신학술신으로 현 재 조선신학교 교수로 목회를 맡고 있고 가장 실력있는 청년학자 요 문필가로 이 저술에 적임자이다.

(1) 예수는 누구인가 (2) 그는 어떻게 살았나 (3) 그의 사상으로 된 내 용이 신선하고 충실한 책이다.

발행소 大韓基督敎書會
平山市 昌善洞

그후 그는 독일민중을 위하여 성경번역을 하여 드른 품 월구경적으로 신앙하던 독일대중에 생명의 광명을 가져다 줄 것을 마시기 하였던 것을 일관하여 생각하면 종교개혁은 一五一一年十月三十一일에 우연히 이루어난 것이 아니었다. 改革者 루터 한 그리스도인이 치려는에서 시작하여 교회의 부패와 타락된 사실을 지적하는 데에 예상외의 로사건이 발원되었던 것이다. 現代敎會에 대한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척도인 성경에 도라가서 우선 자기가 그대로 믿고 사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을 배운다. 루터의 종교개혁기념일(宗敎改革記念日)을 맞이하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줄 안다.

新刊紹介

교계에 우리 손으로 된 예
전은 이것이 처음이다. 저자
목사는 청상신학출신으로 현
조선신학교 교수로 목회를 보
고 가정 실력있는 청년학자
윤필가로 이 저술에 적임자
다.
예수는 누구인가 (2) 그는 어
살으셨나 (3) 그의思想 등
장으로 된 내용이 심신하고
실한 책이다.

阜山市 昌善洞
行所 大韓基督敎書會

[illegible]

說教

初代敎會와 우리의 任務

本文使徒行傳十一章 19-26

東京敎會敎師 吳允台

우리는 일본에 있는 六十여
萬교포를 비롯하여 우리 이웃
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그리
스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임하는 자들이다.

나는 이같은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使徒時代敎會와
韓國初代敎會에 관한 문제를
두가지 면으로 명각하여 보려
한다.

使徒時代의 敎會活動을
살피고 보면 첫째는 많은人物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그들은
영웅호걸로 국가정치가로 국사
(國事)를 좌우한 이들이 아니
고 敎會로 충만하여 요은된
음역에서 그리스대인들에게 외를
깨닫게하고 그 영혼을 聖靈으
로 인도하는 구원사업만을 힘
쓴 자들이다.

使徒들의 근거지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교회인데 그 중에도 안
디옥교회는 선교의 발산지로
세계선교에 큰 공을 세웠으니
세일은 대한기독교 총회는 여
기서 배울바가 있는줄 안다.
안디옥 敎會實情



敎會學校
敎師講座

敎師와 그 準備

魯安理

(3)

二、학생을 파악할것
敎育자의 일이 학생을 돕는
데 있다 할진대 그는 마음껏
그들을 개인적으로 잘 파악하
고 있어야 하며 모든 형편 그
에 응하여야 할것이다. 아이들에
게 있어서는 敎會에서 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본간이 없
는것이 보통이다. 가정이나
보통학교 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공부 조건은 어린이들의
성품을 형성하는데 놀라운 힘
을 가지는것이다. 이것은 敎會

학교에 있어서는 꼭 같으나.
그런고로 교사는 학생 하나
하나와 친밀하여 거기에 힘쓰
는것이다. 친밀하여진다는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각 학생과
남로 깊은 사귄을 하여 가며
그의 성질 그의 병을 형편
전체를 잘 통찰하고 있음을
알하는것이다. 현명한 어머니는
자녀의 자녀 한사람씩을
그 개성대로 세밀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남은 편애를 가
질수 있어도 그의 어머니는
자녀 하나 하나의 요구

三、전문적 훈련
다른 친구와 길을 같이 가
다가 우체통 같은데 편지를
던져 놓으라고 잠깐 멈춰서보
라. 동행자들은 어드문 알리
다. 버리는것을 경험할것이
다. 이와 국 같은것이 우리
교사가 그 거를을 검출때에
발생하는것이다. 교사 양성
외의 수업을 얻어 취면 다
편한것 같이 생각하는것은 대

(一) 다른 동료자들과 연락을
밀접히 하여야한다. 인격적
감화의 힘은 실로 큰것이다
다른 교사들과 접촉하는 기회
는 허락되는대로 이용할 것
전한다. 그래서 서로 교수에
관한 상의를 하며 의견 교환
하기를 힘쓰는 것임이다. 교사
회 연구회 연합회 같은것은
이런 의미에서 매우 큰 가치
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마
다른 교사들과 한자리에서 모
여 피차 지식을 교환하는 것

한교 初代敎會의 活動
피보면 외국에 비할수 없는
급속한 발전상태를 알수있다.
그 배후에는 안디옥교회같은
몇가지 원동력이 구비되어 있
었다.
(一) 신령한 신앙과 지식과 인격
이 구비된 선교사들이 임국하
였다. 의사였던 아-벤氏를 비
롯하여 아퀼라 엔디우드 마

에 따라서 공평한 봉사를 해
주는것이다. 교사는 이런 어머
니를 본받아야 한다. 만일 그
학생을 참으로 파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어머니요
그밖에는 교사라고 할수있는
것이다.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가지는 고귀한 관심을 우리
교사된 사람이 학생에게 가지
고 있어야한다.

실을 말한말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잡음의
유혹을 받고 게으른 잠을 자
나.
바울이 말한대로 「나는 자신
에 속하여 외아래 팔렸고 나
나의 행하는것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고 온전히 바라는
신한길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실화하면서도 외악된 결과만을
저술러 놓는자」가 되고만것
소이다. 내게는 용이한것은 약
에 쓸라하여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되기를 바라바가 없건만

포삼열 기일 리를지 구해선
가구려 영재황氏는 다-그러한
선교자들이 었다.
그들은 한국선교에 있어서
지도하고 연구한 결과 自力傳
道를 목적으로 自立 自治라는
三大原則을 세우고 韓人敎師들
양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일에
는 中國宣敎師 韓半氏의 勸言
이 많았다. 그들의 지도한 말
은 불가능한 서지에서조차 하나
니는 하일줄 믿고 도전했기다
「구조사들의 살색은 희게할수
없으나 그들은 반듯이 새로나
라라」하진 말을을 인용하고
간절하게 기도한바 吉善주 양
숙희 최경조 함기찬 이기중
김익돈 김천주같은 三千里江山
뿐 아니라 滿洲 上海 日本과

(참외하는 青年의 苦悶便紙)
유당의 나그네로 한가롭게
살어주던 이도 없는 放浪兒는
오늘도 정처없이 나리 뒷골목
을 애매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때로는 하나
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父母를
원망합니다. 어떻게하던지 나는
자수성가(自手成事)하리라
결심 하였읍니다. 그러나 웬일
인지 내 생각한대로 성공되는
일은 내게서 점점 멀러지는것
같읍니다. 안락가읍습니다. 이것
이 비록 내게만의 심술 같은
일이 아니라 오늘의 여러사람
에게 있는 일 같습니다. 이런사

우리 放浪兒의 感激 (4)
실을 말한말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잡음의
유혹을 받고 게으른 잠을 자
나.
바울이 말한대로 「나는 자신
에 속하여 외아래 팔렸고 나
나의 행하는것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고 온전히 바라는
신한길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실화하면서도 외악된 결과만을
저술러 놓는자」가 되고만것
소이다. 내게는 용이한것은 약
에 쓸라하여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되기를 바라바가 없건만

우리 放浪兒의 感激 (4)
실을 말한말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잡음의
유혹을 받고 게으른 잠을 자
나.
바울이 말한대로 「나는 자신
에 속하여 외아래 팔렸고 나
나의 행하는것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고 온전히 바라는
신한길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실화하면서도 외악된 결과만을
저술러 놓는자」가 되고만것
소이다. 내게는 용이한것은 약
에 쓸라하여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되기를 바라바가 없건만

우리 放浪兒의 感激 (4)
실을 말한말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잡음의
유혹을 받고 게으른 잠을 자
나.
바울이 말한대로 「나는 자신
에 속하여 외아래 팔렸고 나
나의 행하는것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고 온전히 바라는
신한길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실화하면서도 외악된 결과만을
저술러 놓는자」가 되고만것
소이다. 내게는 용이한것은 약
에 쓸라하여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되기를 바라바가 없건만

우리 放浪兒의 感激 (4)
실을 말한말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잡음의
유혹을 받고 게으른 잠을 자
나.
바울이 말한대로 「나는 자신
에 속하여 외아래 팔렸고 나
나의 행하는것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고 온전히 바라는
신한길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실화하면서도 외악된 결과만을
저술러 놓는자」가 되고만것
소이다. 내게는 용이한것은 약
에 쓸라하여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되기를 바라바가 없건만

우리 放浪兒의 感激 (4)
실을 말한말에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잡음의
유혹을 받고 게으른 잠을 자
나.
바울이 말한대로 「나는 자신
에 속하여 외아래 팔렸고 나
나의 행하는것을 내가 제어할
능력이 없고 온전히 바라는
신한길은 행하지도 아니하고
실화하면서도 외악된 결과만을
저술러 놓는자」가 되고만것
소이다. 내게는 용이한것은 약
에 쓸라하여도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되기를 바라바가 없건만

것인데 이와 같이하여 전부가
합동하여 사기(士氣)를 높히

日本新舊教浸透現狀

★ ★

출자 (기)이 할머니를 업는다

(一四)

우리나라 인류역사를 검토하여볼 때 이것이 한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풍산주의 국가들이 그 예외를 理由를 우리는 아지 못한다.



故國行 (2)

나들이 편편치 못한 사람이라도 오라간만에 돌아왔다고 집에 들어간 저녁부터 날마다 손님이 연락부일로 찾아와서 실세없이 손님 접대를 하게 되었다. 육군사관학교 군복으로 개신 전총독 육사와 세심 육군병원에 개신 이복부육사와 심장이게 또한 호담한

아침 보수동 삼리교회에 장수철 박재훈 두 사람의 창작성가를 발표하는 찬미 봉헌식에 참석하였다가 김재준 교수를 만났다. Y.M.C.A 연합회 총무 이환신(李桓信) 육사와 중앙신학 교장 이호빈(李浩彬) 육사도 반가워하였다. 말로만 들었던 보수동 교회 신전축 예배담을 보니 반갑다. 피난민 교회로는 아주 훌륭하다. 담당이 더욱 마음에 들었다.

카음날 이환신 이호빈 두친구와 오찬을 나누며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동명의 소식을

한글 인쇄의 과거
세계 인쇄역사상에 유명한, 아조 제3세 의종왕 때에, 구리활자와 쇠활자의 주조이다 [1403년] 이것은 독일인 요한 구-텐베르크 남주조 활자보다도 50년 앞선 것이며, 일본 보다는 200년 앞선 것이다. 우리의 활자와 우리 인쇄술이, 일본으로 오게 되어서, 이것으로 인하여, 서양 인쇄술과 함께 연결하여, 오늘날의 일본 인쇄기술은, 세계수준에 달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주었으니, 우리는 다시 우리의 것과

나지 못할 문화의 기초이다. 커드 나라를 잘못하고, 그 나라의 문화적도는, 대체로 그런 예술의 발달과, 그 백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측정하고 기준 할수가 있는 것이다.

몸고 동명 Y.M.C.A. 거점을 많이 하는 이 총무의 성과가 고아웠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나라의 일이나 교회일이니, 청년운동에 모든 단절한일이 많으나 결국 하나남에서라도 처리하고 해갈해 주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결코 실망이 아니요 아름다운 믿음의 증거였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할 것으로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절실한 깨달음이었다. 앞으로 10월한달을 '동토대탈출' (阿圖愛德)의 열로 하로 연국적으로 동토대를 탈조하기로 한 것도 뜻이 있는 일이라고 보았다.

장로교회와 본교문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사람 한사람의 사랑으로 바로 해결될 기운과 희망이 동후하였다. 천관하게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이들이 여러분 개신당이 고아웠다. 지난번 총회에서 너머가 속하게 너머 겸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는 모양이오 조신숙에서 너머 격화해서 지나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어서 이제 조만간 서로 접근하고 라형할 길을 찾게 된 것 같다고 보았다. 물론 아직 마가 떠나지 아니하고 움직이고 있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성선의 역사로 인하여 서로 손을 잡게 될 날이 멀지 아니해서 올 줄 믿는다.

선교사 중에 아담쓰씨나 육히스미스박사가 양방에 대하여 서로 자중하여 어겼는지 총회가 갈리지 않도록 하라고 간절한 권유를 한 것이 많은 형이 없었었다. 그러나 선교부의 전유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그리스도의 사랑안에 서 원만히 해결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어떤 선입주권을 버리고 마의 비옥을 벗어 버리고 서로 눈가중이가 되어 더구나 주안에서 한 형제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보면 서로 웃고 말일이 아닌가 그리고 일반 신자의 문화와 교양이 좀더 발달되고 향상 된다면 자연히 해결 될 문제라고 본다. 요새 교회의 남 녀들은 지도자가운데 사람이 부족한 것을 한탄하고 사람의 운동을 전개시키려는 기운은 매우 뜻있는 일이었다. (계속) — 主 —

西陣織有線無線ビロート
(四本ベルベット)
韓服 치 마 갑 其他
生産都賣販賣 岩 本 工 場
經營主 李 鐘 洵
京都市上京區大宮通蘆山寺上ル
西入社横町288 電話西陣(4)5852番

故郷の味覺を 食道園
食道園으로
大 阪 名 物 元 祖 食 道 園
平 壤 冷 麵
大 阪 千 日 前 電 話 (75) 5247